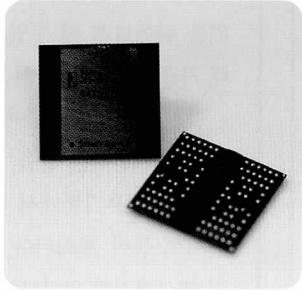


●● 삼성전자, 차세대 초고속 'XDR D램'



삼성전자가 차세대 초고속 D램 제품인 'XDR(eXtreme Data Rate) D램'을 개발했다.

'XDR D램'은 기존 램버스 D램의 계보를 잇는 차세대 제품으로, 초당 3.2기가비트의 속도로 동작, 범용 램버스 D램 대비 4배, DDR400 대비 8배 빠른 현존 최고 속도의 D램 제품이다. 이는 칩(Chip) 1개당 1초에 6.4기가바이트(6.4Gb)로, 300페이지 기준 단행본 1만권 분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제품은 초고성능 구현을 위해 종전 램버스 D램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FlexPhase, DRSL, ODR 등의 신기술을 채택, 데이터 전송속도가 대폭 빨라졌다.

삼성전자는 향후 초당 6.4기가비트(6.4Gb)까지 전송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어, 시스템에 칩 4개만 장착해도 일반 PC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수준의 용량인 초당 50기가바이트(50GB)까지 전송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XDR D램'은 또한 시스템 설계의 단순화로 원가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차세대 고성능 시스템 구현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의 차세대 게임기에 채택될 예정이며, 디지털 가전·그래픽·네트워크 응용시장에 이어, PC·서버·워크스테이션 등과 같은 고성능 컴퓨터 시장에도 적극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다음달부터 512메가비트(512Mb) 'XDR D램' 샘플을 시스템업체에 공급하고, 올해 말부터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 12인치 휴대용 DVD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화면 크기인 12인치 와이드 TFT-LCD 채용 휴대용 DVD 플레이어 (모델명: DVD-L1200W)를 국내에 본격 시판한다.

신제품 『DVD-L1200W』은 29mm 두께의 초박형으로 휴대가 간편하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배터리 2개를 기본 제공함으로써 7시간동안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넓고 선명한 12인치 TFT-LCD를 채용하여 야외에서도 큰 화면으로 선명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3개의 헤드폰 단자가 있어 여럿이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또한, 차량용 어댑터를 기본 제공하고 DVD 타이틀·음악CD·비디오CD·MP3 CD 등도 재생이 가능하여 여행 중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집안에서는 리모컨과 가정용 어댑터를 사용하면 홈 씨어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판매가격은 140만원대 이다.

●● LG전자, 5세대 디지털TV 수신 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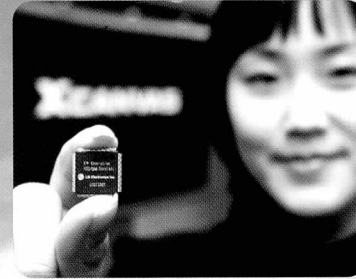
LG전자가 DTV 수신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5세대 수신 칩 개발에 성공, 미국, 한국, 캐나다 등 북미 DTV 규격(ATSC) 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디지털TV방송 활성화를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5세대 수신 칩은 기존 4세대 수신 칩 보다 획기적으로 성능을 개선해 도심지역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고 실내 수신성능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하나의 칩으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VSB : Vestigial Side Band)과 디지털 케이블 방송(QAM :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을 수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칩은 독자 개발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해 수신 성능을 대폭 개선했으며, 도심의 밀집된 빌딩에 의해 발생하는 난시청 현상인 '다중경로에 의한 신호간섭 현상(multiple ghosts)'을 해결해 수신 성공률을 높였다.

최근 국내 방송사가 실시한 필드테스트(Field Test)에서 이번 5세대 칩의 수신 성공률이 94%로 측정돼 수신성능 개선을 확인했으며, 난시청 지역 또한 수신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LG전자는 5세대 수신 칩을 일체형 디지털 TV 스토모델과 디지털 셋톱박스에 적용해 세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 DVD레코더+VTR, 콤비레코더



LG전자는 DVD레코더에 VTR을 복합한 콤비레코더(모델명 LCR-4900)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콤비레코더는 VHS Tape, 캠코더에 녹화한 영상 및 TV화면을 DVD-R/RW 디스크에 녹화하여 화질의 열화현상 없이 고화질을 그대로 장기간 영구히 보존할 수가 있고, 녹화 시간도 디스크 1장에 최대 4 시간까지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의 취향대로 편집(화면이동/결합/삭제/추가)할 수 있으며 녹화한 화면들을 편리하게 탐색하여 재생할 수 있으며(썸네일(Thumb-nail) 기능), 기존 VTR방식의 OSD(on screen display)를 보다 생생하고 시각화된 그래픽으로 통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최상의 편리와 재미를 동시에 느끼게 한다.

한편 이 제품은 DVD/DVD±R/DVD±RW 재생 뿐만 아니라 VCD/SVCD/VHS, Audio CD/CD-R/CD-RW/MP3 CD, JPEG/KODAK Picture CD 등 다양한 디스크포맷을 지원하는 호환성을 갖췄으며, 초슬림 규격, Half-Mirror 적용 등 고급형이면서 세련된 첨단이미지를 제공한다. 제품 가격은 80만원대 후반이다.

